

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창국 박상증 박은정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NGO담당 기자
발신 참여연대(사무국장 김성희 : 723-5300, shine@pspd.org
사이버팀 담당 : 이셋별 : 725-7105 free@pspd.org)
제목 삼성직원이 참여연대 웹사이트 서버 압수수색
날짜 2001. 5. 31. (총 3 쪽)

보 도 자 료

경찰은 삼성의 사병집단인가? 삼성직원이 참여연대 웹사이트 서버 압수수색 참여연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이재용 경영참여 반대 성명' 수사과정에서 남대문경찰서, 압수수색영장 집행하면서 삼성직원을 경찰로 속여

남대문경찰서가 삼성생명의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수사한다며 참여연대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삼성 직원을 경찰직원으로 위장해 참여연대 웹사이트 서버를
직접 조사하게 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행위가 공권력 행사의 적
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부당하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규정하고 남대문경찰서에 엄중
항의하고 관련자 문책을 포함한 법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의 경과

1. 지난 26일, 참여연대 웹사이트(<http://peoplepower21.org>)에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의 경영참여 반대 성명서'라는 제목의 글이 삼성생명 직원 5000여명의 실명으로 게시되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측은 글 게시자를 명예훼손혐의로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하였고 남대문경찰서가 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참여연대 웹사이트 서버 접속기록(로그파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접 영장을 집행한 사람이 경찰이 아닌 삼성SDS 직원(이상언 과장 32세)임이 밝혀졌다.
2. 지난 26일 참여연대 웹사이트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

용의 경영참여 반대 성명서'라는 제목의 글은 "이재용씨의 삼성전자 상무보 등극과 지속적인 경영참여에 대하여 반대함을 전 직원들의 서명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삼성생명 직원 실명 5083명의 이름이 연명되어 있었다.(별첨1 참조) '삼성생명직원일동'이라는 작성자명으로 올라온 이 글은 "앞으로 반복될 이러한 세습을 막기 위해 삼성생명 직원들이 앞장선 것은 삼성생명의 고객과 주주, 채권단의 시각에서 기업가치가 하락될 위험이 있어 사전에 견제하는 입장에서 취하는 행동"이라고 쓰여져 있었다.

참여연대에서는 이름이 연명된 삼성생명 직원들과 인사과의 사실무근이라며 항의가 쇄도하고, 글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 '이해다툼이 있고,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당사자에 요청에 의해 삭제할 수 있다'는 게시판 운영방침에 따라 28일 오후 1시경 삼성생명의 공문요청에 의해 해당 글을 삭제조치 하였다.

3. 이후 29일, 남대문경찰서 송완주 경사(남대문경찰서 수사과 수사 2계)가 찾아와 삼성생명에서 고발 했다고 게시자의 IP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참여연대 웹사이트의 접속 기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접속기록은 수시로 삭제하며 남아 있다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영장 없이는 보여줄 수 없음을 통보하자, 31일 오전 11시경 송경사는 수색영장(별첨2)을 발부 받아 다른 1인과 함께 다시 참여연대 사무실로 찾아왔다. 참여연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요청이므로 관계자 입회 하에 접속기록을 열람하게 하였다.

4. 송경사는 이 과정에서 처음에 함께 온 다른 1인을 '남대문경찰서 소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접속기록을 확인한 것은 송경사가 아닌 동행인이었고 이에 참여연대 간사가 동행인의 정확한 신원을 요청하자, 송경사는 확인을 해주지 않고 얼버무리다가, 결국 삼성SDS 직원임을 자백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자 송경사와 삼성SDS 직원은 남대문경찰서가 먼저 삼성SDS측에 참여연대 전산확인을 위한 담당요원 1명을 요청하였으며(별첨 3참조) 또한 삼성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참여연대 사무실로 왔다고 밝혔다.

사건의 문제점

1. 삼성 직원들이 이재용씨의 경영권 세습에 반대하는 의견을 시민단체 자유게시판에 올리고 삼성생명이 이에 대해 명의 도용으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며 게시자를 고발한 것에 대해, 경찰이 삼성생명측의 임직원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의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신청하여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2. 참여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남대문경찰서가 먼저 삼성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였는 바, 경찰내에 전담 부서인 사이버 수사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

자인 삼성측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지켜야할 중립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검사나 사법경찰관리와 같은 수사기관직원 이어야 함에도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없이 삼성직원을 수사주체로 내세우는 것은 공권력이 삼성의 사명을 자처한 것에 다름 아니다

3. 참여연대는 남대문경찰서에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된 경위를 묻고 엄중 항의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추후 사실관계와 위법성여부를 확인하여 관련자 문책, 법적 조치 등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별첨자료▣

1. 26일 참여연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이재용의 경영참여 반대 성명서' 전문
2. 압수수색영장 사본(2쪽)
3. 남대문경찰서의 업무협조 요청에 대한 삼성SDS의 회신 공문 사본
4. 경위서(삼성직원 영장집행참여 경위서)
5. 남대문경찰서에 보낸 항의 공문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 오늘 사건 관련 비디오 테이프가 필요하신 언론사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명칭 1

Subject: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의 경영참여 반대 <성명서> 글등록 정보

<성명서>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직원들은 현 삼성그룹 이건희회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외적인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보인 이재용씨의 삼성전자 상무보 등극과 계속적인 경영참여에 대하여 반대함을 전 직원들의 서명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반복될 이러한 세습을 막기 위해 삼성생명 직원들이 앞장선 것은 삼성생명의 고객과 주주, 채권단의 시각에서 기업가치가 하락될 위험이 있어 사전에 견제하는 입장에서 취하는 행동입니다. 이 취지에 동참해준 직원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며 아래 명단을 공개합니다.

- 참여자명단 -





삼성생명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150

100-716

TEL 751-8249 FAX 2259-7410

2001. 5. 28

(02-751-8249, 방대원)

삼성인신 : 제2001-1호
 수 신 : 참여연대
 참 조 : 사이버팀(김갯별)
 제 목 : 자유게시판 (2770-2766) 삭제요청

2001.5.26. 사이버 참여연대 자유게시판에 번호 2770-2766으로 게시된 내용은 삼성생명 임직원을 도용하여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삼성생명 임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바 게시판 내용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1. 삭제할 대상(내용)

- 번호 2770 : 이견희 회장의 신경영 리턴요구 삼성생명 임직원 일동
- 번호 2769 : 삼성 이견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의 경영참여 반대.... 삼성생명 임직원 일동
- 번호 2768 : Re.. 참여명단 추가 삼성생명 임직원 일동
- 번호 2767 : Re.. 참여명단 추가입니다..... 삼성생명 임직원 일동
- 번호 2766 : Re.. 참여명단 추가 삼성생명 임직원 일동

2. 명예훼손 내용

- 삼성생명 임직원이 서명하지 않은 내용을 서명한 것처럼 허위로 게시하여 임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
- 삼성생명 임직원들의 명예를 임의로 도용하여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삼성생명의 기업이미지에 막대한 명예를 훼손하였음.

3. 요청사항

- 해당 게시물(2766-2770)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며, 해당 게시물의 등록자에 대하여 접속 ip 및 장소 등에 관한 신상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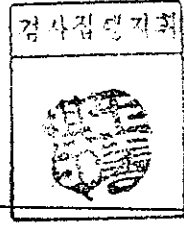
4. 기타

- 기타 문의사항은 삼성생명 인사팀 방대원 대리(02-751-8249)로 연락바랍니다.

삼 성 생 명 보 험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사 장 대 정



비치침2



1406

식2자

압수수색검증영장

[일반용]

서울지방법원

영장번호	137P	죄명	명예훼손	
피의자	성명	불상	직업	불상
	주민등록번호	불상		
	주거	불상		
청구한 검사	백승권		변호인	
압수,수색,검증 필요로하는사유	별지 기재와 같다		유효기간	2001. 6. 6. 까지
압수,수색,검증할 장	서울 종로구 수송동 5번지 동일빌딩3층(참여연대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압수,수색,검증할 신체,물건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삼성이건희회장 및 아들 이재용, 임직원 이름 도용하여 (성명서)내용 및 IP주소 확인코저			
일부기각의 취지	<input type="checkbox"/> 장소 <input type="checkbox"/> 신체, 물건 <input type="checkbox"/> 기타()			

식2자

식2자

식2자

식2자

위 사건의 범죄수사에 필요하므로, 위와 같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한다.
유효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2001. 5. 30.

판사

[Handwritten Signature]

집행일시		집행장소	
집행불능사유			
처리자의 소속관서, 관직		처리자 서명 날인	

형소 215, 219, 214, 형소규 109, 58.
주: 일부기각의 경우에는 해당란에 "V" 표시를 한다

범죄사실 및 압수, 수색영장 필요로 하는 사유

일체불상 피의자는 2001. 5. 26. 12시 54분부터 13시 01분까지 5분 동안 총 4차례 서울 종로구 수소동 5번지 동일빌딩 3층 Cyber참여연대 사이트(<http://www.peoplepower21.org>) 자유게시판에

삼성이건희회장 과 아들 이재용, 삼성생명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시킬 목적으로

소위 "삼성이건희회장의 아들 이재용의 경영 참여 반대【성명서】"라는 제목하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직원들은 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외적인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보인 이재용씨의 삼성전자 상무보 등극과 지속적인 경영참여에 대하여 반대함을 전 직원들의 서명으로 대신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반복될 이러한 세습을 막기 위해 삼성생명 직원들이 앞장선 것은 삼성생명의 고객과 주주, 채권단의 시각에서 기업가치가 하락 될 위험이 있어 사전에 견제하는 입장에서 취하는 행동입니다.

이 취지에 동참해준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아래 명단을 공개 합니다는 내용의 사실과 다른 허위 글을 고발인 회사 직원 5083명의 명의까지 도용하여 게시함으로써 삼성생명 및 삼성그룹의 삼성임직원 명예 및 신용 훼손 시킨 것으로

참여연대 자유게시판에 위 내용을 게시한자의 IP주소 확인하여 증거 확보하고 피의자를 특정코져 함.

비밀 3



삼성SDS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07-18
135-918
TEL: 3428-2114 FAX: 3428-4100

수신 : 남대문 경찰서장
간송 : 수사과장
제목 : 업무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귀 기관의 협조요청(문서번호 수사 61110-2446)에 의거

참의인대 전산파인을 위한 담당요원 1명을 다음과 같이

함소합니다.

- 다 음 -

성 명 : 이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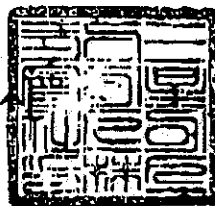
주민번호 : 69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연 락 처 : H.P. 016

- 이 상.

삼 성 S D S 주 식 회



②

경 의 시

- 성명 : 이
- 주민번호 :
- 소속 : 삼성SDS 정보시스템실
- 업무 : 시스템 운영 및 네트워크 관리.
- 삼성생명 양희석 과장의 요청으로 남대문 경찰서 송부장님(송원수 경사) 참여연대 방문 후 접속로그 기록을 확인 요청코자 방문
 - 도착 : 11시 30분 경.
 - 시스템 확인 : 11시 50분 ~ 12시 (약 10분간)

※

참여연대 서버 운영 담당자 이재철씨 임회하에 접속로그 확인.
 특정 게시물에 대한 IP ADDRESS 확인을 위한 작업전행.
 확인결과 기록 또는 정보를 기록으로 남겨 취득한 내용은 없음.
 확인 진행 시작전 소속 및 이름을 밝히려는 사전 정보를 듣지 못한
 상대에서 사전 협의 사항으로 알고 별도 신분확인 없이 진행함.
 진행과정에서 본인의 신분확인이 필요하다는 요청으로 신분을 밝히고
 본 경위서를 작성하게 되었음.

⑧



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창국 박상중 박은정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문서번호 참연2001-5
수 신 남대문경찰서장(참조 : 수사과장)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담당 : 이재명 간사 723-5302 jmlee@pspd.org)
제 목 항의 및 질의서
날 짜 2001. 5. 31. (총 2 쪽)

압수수색영장집행과 관련한 항의 및 질의서

1. 금일(今日) 남대문 경찰서 송완주 경사 지휘로 집행한 참여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번호 1379)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귀서(貴署)의 법집행이 법률적 근거 없는
위법부당한 것이며 아울러 기존의 법집행 관행에도 크게 벗어난 것으로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관련
자들에 대한 사실조사 및 문책을 요구하며 귀서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2. 사건 경위 :

- 금일 11시경, 삼성생명의 명예훼손 혐의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귀서가 박승권 검사
의 지휘를 받아 서울지법으로부터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귀서의
송완주 경사의 1인이 참여연대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압수수색이 정당한 법절차에
따른 법집행이었기 때문에 참여연대는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집행
에 참여한 귀서 직원의 신분확인을 요청했고 송완주 경사는 본인의 신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행한 1인에 대해서는 남대문경찰서 직원이라며 신분확인을 해
주지 않았고 참여연대는 당연히 동행한 직원이 귀서 내지 법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
신분일 것이라는 판단하에 동행한 1인의 신분확인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컴퓨터에 대한 수색참여는 송완주 경사가 아닌 동행한 1인이 담당하였고 조
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참여연대 직원이 재차 동행한 1인의 신분확인을 요청하자
송완주 경사는 그때서야 동행인이 수사기관직원이 아닌 삼성SDS직원이라며 신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3. 이처럼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닌 고소(고발)인과 직접 관련된 회사의 직원이 영장집

행에 직접 참여해 조사를 벌인 행위는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지켜야 할 중립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귀서가 IP확인을 위한 전문기술능력을 지닌 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부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경찰과 검찰이 고소(고발)인을 직접 법집행 현장에 참여시켜 조사를 담당하게 하는 전례는 찾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4. 이같은 상황은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귀서가 공권력의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법과 규정을 벗어나 부적절하고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경위와 위법성 여부를 따져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한 경위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 고소(고발)인측인 삼성직원을 참여시키게 된 경위(삼성측의 요구였는지 아니면 귀서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2)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삼성직원을 압수수색에 참여시킨 이유

3) 고소(고발)인이 압수수색영장집행 등 직접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4) 이와 같은 법집행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면 관련자를 형사처벌 또는 문책할 의사가 있는지?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창국·박상증·박은정